

제주사회복지신문

>2015년 12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98호

되돌아 본 2015 제주 복지현장

행복한 복지공동체 작지만 큰 걸음 딛다

2015년 12월, 을미년(乙未年)이 저물고 있다. 평화를 상징하는 양의 해 기운 덕분인지, 올 한해는 따뜻한 소식의 참 많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기도 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복지현장의 이슈를 정리했다.

회복지협의회가 지난 6월 개소한 인권사랑방은 총 6인의 운영위원을 두고, 변호사 1인, 전문상담가 1인의 체제로 운영 중이다. 현재 인권사랑방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내의 다양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법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 다양한 법·제도의 변화

올 한해는 복지제도 및 법 체계에 지각대변동이 일어났다고 할 만큼 변화도 많았다. 우선 연초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부분들을 규정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현재까지도 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받으려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규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 처우개선의 발판 마련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임금 현실화를 위한 보수체계를 개편했다. 이로써 여성인권상담시설, 자활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도내 87개 시설 244명의 종사자가 분권 수준의 보수를 점진적으로 적용받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도내 13개 직능단체로 구성된 2014 제주사회복지아젠다 포럼에서 제시한 ‘비분권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 방안’이 원희룡 지사의 공약으로 채택돼 실현된 것이다.

또한 지역의 사회복지계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인권사랑방’이 개설되기도 했다. 제주사

☞ 3면에서 계속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세미나실에서 관계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 2016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인터뷰

10년만에 지체·언어 장애 이겨 낸 ‘중학교 졸업장’

제10회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졸업생 김형남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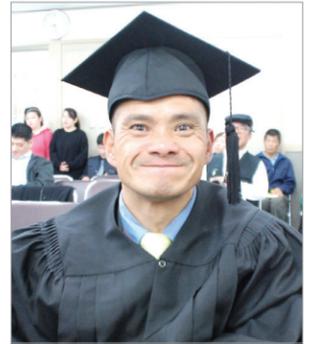
지난달 18일 열린 제10회 제주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주희) 졸업식장은 인파로 가득했다. 오랜 노력으로 졸업장을 수여받는 이원용(57), 강숙민(56), 김형남(45), 김한일(31) 씨를 축하하기 위해서다. 그 가운데 10년간 중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김형남 씨, 졸업식장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주변 장애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형남 씨가 공부를 시작한 계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라동지역에서 청년회활동을 하면서부터

다. 모두 어렵다고 말했지만, 그는 청년회장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공부다.

“7년 전부터 아라동 주변에서 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을 다니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중학교 졸업장을 따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렸다. 지체, 언어 장애라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았습니다. 언어장애는 물론 학습장애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 시기마다 야간학교 선생님들이 큰 도



움이 됐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이 됐다. 새로운 출발인 것이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라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인권사랑방 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인권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화
방문
인터넷
상담

고민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 사례발굴 접수 및 상담, 법률지원
• 전용 E-mail : tohic@naver.com (변호사 전용)
* 상담의뢰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지켜집니다.

인권
관련
교육

사회복지시설방문 인권교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용자(가족) 대상 현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 사회복지시설(단체) 중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 2016년 5월까지 8개소 선착순 신청 받습니다.
사회복지현장의 인권강사 양성교육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인권사랑방 064)702-3783(변호사 또는 담당 직원이 응대)



서민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법률홈닥터' 사업도 함께 운영됩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서귀포지역·관광약자 위한 복지정책 필요

제2차 정례회 복지현안 도정질의 정리

서귀포지역 사회복지시설 부족

강익자 의원(새정치·비례)은 서귀포 지역에 사회복지 시설이 부족해 지역민들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90%가 제주시에 집중돼 있다”며 “서귀포시에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향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서귀포시에 설치해야 하며, 분관형태로라도 기능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신고사항이라 특정지역에 설치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앞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다각

적으로 검토해 꼭 필요한 사항은 분관형태로라도 설치할 것이며, 지역안배 및 전국적 시설설치 기준을 감안해 제한한 사항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필요

유진의 의원(새누리당·비례)은 관광약자가 접근가능한 제주관광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최근 제2공항 계획이 나오면서 제주관광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으나,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며 “제주에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불편한 관광지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며 관광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공항 관광약자 안내

센터의 필요성, 관광약자 이동권 확대, 장애인 관광정보 확대 방안,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모두 동의하나 현재 제주공항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손을 봐야 될게 많음에 따라, 사업시기와 예산규모를 보면서 보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관광약자 이동권에 대해서는 도의 재원범위내에서 제주지형에 맞는 중저상버스 운행, 장애인 렌트카를 운영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도 적용 등의 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관광 정보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인만이 아닌, 비장애인의 경우도 관광정보 접근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관광안내 앱 및 정보지를 운영하며,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효과가 있는 부분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 위한 토론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은 지난달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의 배용호 사무총장의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추진과제’에 대한 주제가 발표됐으며, 김태석 도의원, 제주도청 강문수 교통정책과장·김선홍 교통체계개선팀장,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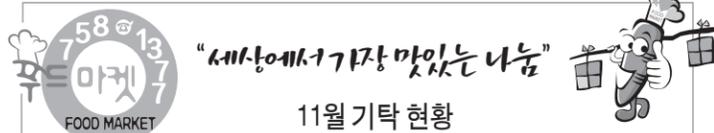
응범 국장, 김태우 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 이응범 국장은 “2011년도까지 저상버스 30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10대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적고 저상버스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추가설치, 이용시간 연장, 증차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12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사회복지협의회)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한국지역 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 사회복지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주년 기념심포지움 -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를 말한다 기획주제 발표 및 토론 한·일 학술교류세미나 Workshop 	3일(목) 13시~4일(금) 13시 제주KAL호텔	070-7500-150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단체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 직무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실무교육(1시간) 민간보급관리시스템(1시간) 기타 직무연찬(1시간) 	8일(화) 14시~17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	753-3225
제주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새일찾기 준비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희망여성 나의 특성 감점발견하기 선호하는 직업 찾기(직업선호도검사 S형) 진로설계 및 취업전략 세우기 취업지원 받기(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클리닉, 동행면접내용으로 취업대비 교육 실시) 	7일(월)~11일(금) 9시 30분~13시30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나눔실	753-8090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제1회 지역아동센터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 중심의 행사 개최로 참여 아동들의 공감대 형성 	5일(토) 9시~16시 한라체육관 실내 및 야외 주차장	702-5578
제주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생명존중 자살예방 연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명 : “죽기살기” 참석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극단명 : 극단치막무대 (연출 : 권오현) 	22일(화) 14시30분, 17시30분(2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17-3000
제주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을 위한 힐링 시네마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전문가와 함께하는 영화토크 서귀포시 시민 누구나 	12일(토) 17시 서귀포시 문화벚트리충전소	717-3000



“새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1월기탁 현황

▲금강수산물통=고등어 40kg ▲김만덕기념관=쌀 160kg ▲김치원=김치 40kg ▲꽃비나리는뜨락=떡 319개 ▲도여성단체협의회=생필품 235개 ▲동원F&B제주=어묵등 2,260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663개 ▲손뜻모아봉사회=가래떡 80kg ▲신화유통주식회사=고추장등 624개 ▲오뚜기제주지점=간편미역냉국등 2,234개 ▲이든이네=멸치 9kg ▲자연드림연동점=빵 124봉 ▲자연드림이도점=빵 448봉 ▲작은세상봉사단=라면 232봉 ▲제주보리촌=보리빵 920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200팩 ▲참살이정육마트=돈육 16.5kg ▲파리마켓동광초점=빵 245봉 ▲행복나눔마트=주방세제 104개



사회복지협의회 2015년 10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2,460,000	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원봉사후원	330,000	570,000
복지사업후원	950,000	628,840
푸드마켓후원	1,621,000	4,774,13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도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인 : 고경운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되돌아 본 2015 제주 복지현장



메르스 악재 불구... 알찬 복지서비스 제공 노력

1면에서 계속
 지난 10월에는 복지부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중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 단체들은 복지사업 전반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논란도 일었다. 그 내용은 지자체가 복지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시 복지부와 협의의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 외에도 여러 의미있는 법안과 제도가 시행되기도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정, 맞춤형급여 제도 시행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돼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춘 정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복지계에도 메르스 영향

지난 5월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영향이 사회복지계에 몰아쳤다. 국내에 메르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은 불안에 휩싸였다. 메르스 확진환자는 총 186명으로 집계됐고, 그중 38명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태였다.

이로 인해, 도내 복지서비스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전국단위로 열릴 예정이었던 상반기 행사들은 모두 하반기로 미뤄졌다. 특히 메르스의 영향에 취약한 경로당, 요양원과 사람이 많이 모이고는 사회복지시설·기관은 문을 푹푹 걸어 잠갔다. 외부인이 찾아오는 봉사활동은 물론 면회 요청도 일정기간 거부됐다. 그러나, 약 3개월간 도민들의 노력으로 제주는 메르스청정 지역이라는 타이틀을 땀과, 사회복지시설·기관의 행사와 업무들도 점차 정상화됐다.

◆ 전국 복지행사의 메카 우뚝

여러 전국단위 사회복지행사가 제주도 곳곳에서 열렸다. 지난 5월 제주종합운동경기장 등 도내 일원에서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 대회에서 제주 선수단은 금 17개, 은 13개, 동 11개 등 총 41개의 메달을 따내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

지난 10월 15일부터는 3일간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의 주관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열렸다. 체육대회에는 전국의 사회복지사 1,000여명이 찾았다.

이어 지난 10월 22일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도 매종글래드 제주

호텔을 비롯한 제주도 일원에서 열렸다. 700여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이 참여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 제주, 최고의 복지 평가

제주도는 지난 6월 꾸준한 장애인 지원 정책으로 한국장애인총연합회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시도별 복지·교육분야 비교조사'에서 장애인복지수준 전국 1위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는 전체평균 67.23을 받아, 전국 평균 46점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장애인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는 최고점수를 받았다.

또 많은 도민들이 식품기부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의 누적이용자가 10만명을 돌파해 전국적인 주목 받았다. 이는 2009년 개점 이후 6년간 월평균 1,500여명이 이용한 결과로, 누적물품기부액으로 치면 약 20억원 수준이다.

지난 9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시설이 전국평가에서 전국최초로 7년연속 우수시설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상담 및 판촉사업, 홍보와 개발, 조달사업, 지역사회와의 관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노래! 장애인어울림 띠얏 합창단 4회 정기연주회가 지난달 21일 설문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에는 장애인식 개선과 함께 더불어 사는 모습의 가치를 담은 '그대 향기로 오는 세상', '한걸음' 등의 창작곡이 선보였다.



평가인증 노하우 공모 최우수 수상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이 '믿을만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노하우 대공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국 대형 어린이집들을 재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분야별 노하우를 발굴해 우수사례를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아라어

린이집은 평가인증 내 상호작용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아라어린이집은 최우수상 상금으로 100만원을 수여받았으며, 아라어린이집의 공모사례는 평가인증 적용 우수 어린이집 홍보영상으로 제작돼, 공모전 보고대회 및 보육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2015 통합문화이용권(문화 더누리 프로그램)

쑹쑹한 문화더누리

[쑹쑹한 문화더누리]

중증장애인, 재가 노인 등 외부 출입이 어려운 문화향유 시각 지대에 놓인 복지대상자들의 사연을 신청 받고 재능기부 예술인(단체)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문화교과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외부출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재가 노인 및 사회복지기관(시설)대상자
- **신청(추천)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시설)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 혹은 추천
-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15년 9월 ~ 2016년 1월
 - ※ 회망 2주전까지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신청서 교부 :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www.jcaf.or.kr) '문화나눔-통합문화이용권' 메뉴 이용
 - 신청방법 : 이메일(jejuvoucher@hanmail.net)
- **문의처**
 - 제주주관처(제주문화예술재단) 064-724-9004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후원 : 복권위원회

“천사들 봉사에는 크리스마스 따로 없어요”

3개 지역사회봉사단, 요양원 찾아 연합봉사 활동

지난 2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소속 3개 지역사회봉사단은 ‘천사들의 미리 크리스마스’ 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에서 첫 연합봉사활동을 실시했다(사진)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을 했던 봉사단들은 이날 서로의 봉사활동에 대한 교류와 친목도모는 물론 각

자의 재능을 활용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뜻 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이날 각 봉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에 임했다. 먼저 느영나영문화예술단(단장 김영중)은 색소폰 연주, 한국 무용, 민요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께 즐거운 시간을 선

사했으며, 동초등학교 책임어주기 어머니회(회장 최미세)는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를 도왔음은 물론 조리실 환경정화 활동도 진행했다. 또한 아라봉(대표 이휘영)은 요양원 내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야외 텃밭 정비 등을 실시해 한껏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렸다.

지역사회봉사단은 각 봉



사단이 가진 고유한 전문적인 재능(교육, 기술, 노력, 예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을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 욕구에 맞추어 봉사활동으로 제공하는 있으며, 현재 제주도 내에는 101개 팀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김만덕기념관, 나눔쌀 800kg 기탁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이 지난달 17일, 나눔쌀 800kg을 제주광역푸드뱅크, 이도이동주민센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에 기탁했다.

기탁된 나눔쌀은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한 관람객과 도내외의 기부자들의 정성을 모은 것으로 도내의 사회복지시설, 가정위탁세대, 노숙인 지원센터 등 어려운 이

웃들에게 나눠진다.

김상훈 관장은 “연말을 맞아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도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함을 느낀다”며 “나눔에 동참해주신 관람객과 도내외에서 정성을 모아 쌀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의 뜻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만덕기념관은 지난 5월 2,000Kg, 6월과 7월에도 각 600kg을 기부했으며, 총 누적 기부량은 4톤으로 늘어났다.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선정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이 추진해온 ‘아라주는 아라만들기’ 사업이 지난달 23일 열린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 세미나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사례발표 세미나에는 노인복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분야의 총27곳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아라복지관은 사회복지관 부분에서 ‘우



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은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우수사례집에 소개되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정영은)가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과 국립서울병원에서 개최한 정신건강우수사례 공모전 수상기관으로 지난달 4일 선정됐다.

전국 광역·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은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효과

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k씨에게 주어진 또 한번의 삶’이라는 제목의 주간 재활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증상조절 및 취업성공, 결혼 등 성공적인 사회복귀 사례를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농촌 일손 돕는 사회공헌활동 실시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이동한)은 지난 10월 24일 농촌 일손 돕기 등을 진행하는 2015년도 하반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법인 및 산하기관 직원 80여명의 참여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일대를 찾아 무의촌 진료, 13곳 농가의 콩



수확 농촌 일손 돕기, 평대리 해안 정화활동 등을 실시했다.

희망을 전하는 자립지원 토크콘서트 개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의 ‘2015 자립지원 토크콘서트’가 지난 10월 30일 김만덕기념관 세미

나 홀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에는 ‘2015 시도자립지원사업’에 함께했던 아동과 그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크콘서트에는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관용 교수의 강연과, 토크손님으로 위탁아동이었던 김동희군(21·경호원)과 조한나양(20·대학생)이 자신의 자

립에 대한 이야기와 꿈을 청중과 나눴다. 콘서트에서 조한나 양은 “처음에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주변에서의 도움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갔던 이야기를 하게 됐다”며 “이야기를 해보니 내 자신이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제주케어하우스(원장 홍영진)는 지난 10월 31일 시민회관에서 1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015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 동안의 봉사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시간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며, 봉사활동에 대한 뿌듯함과 그 의미를 되새겼다.

소/식/마/당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체험 실시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이 주최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2015 문화체험행사'가 지난달 11일부터 5일간 도일원에서 열렸다.

제주시니어클럽의 26개 사업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는 모두 1,400여명이 참가했으며, 제주아트랜드, 한울랜드, 연박물관, 보석광물·화석박물관 등을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여기서 만나자 나눔장터 운영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 10월 31일 주민 소통기회 마련 및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제1회 희망공간 '여기서 만나자' 나눔장터 및 교육문화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문화 강사진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체험부스가 운영됐고, 에이치마트(대표 현은호)의 생필품 후원과 주민들의 나눔기부를 통한 별난장터도 열렸다.

사회적 활동 위한 교육·간담회 진행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양지혜)는 지난달 24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13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활동과 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혜 대상자들에게 상대적인 사회적 고립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뇌병변장애인들의 고운우리 난타교실



행복한쉼터(원장 정석왕)는 지난달 13일 뇌병변장애인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즐겁고·즐거운·우리'의 '여가문화교실-난타교실' 수료식 및 성과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료증 전달식과 함께 제주동초등학교 예술동아리난타팀, 해맑은난타팀의 축하공연이 진행됐으며, 지난 7개월간 연습한 고운우리 난타교실 수강생들의 연주도 선보였다.

미디어로 소통하는 아빠와 나



서귀포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영신)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틀간 '미디어로 소통하는 아빠와 나 - 미·소·부자(父子)' 사업 일환으로 1박2일 미디어여행을 실시했다.

발달장애인 자녀와 아빠가 함께하는 이 행사는 도내 관광지를 돌며 함께 동영상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증진을 도모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



국제장애인협회 제주지회(지회장 신영환)는 지난 10월 24일 소속 시각장애인 60명과 함께 서귀포시 유람선착장 근교 및 오설록 일대를 다니며 환경보호캠페인 및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제주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공익적활동 참여해,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받은사랑 나누는 클린올레 봉사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 작은디딤돌 봉사자 봉사단은 지난 10월 31일 사회공헌활동사업의 일환으로 곤울동부터 화북포구까지의 올레길을 걸으며 '클린올레봉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봉사자간 유대감 형성과 복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단원들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50만원 상당 라면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작은세상봉사단(단장 김홍수)'은 세계식량의 날을 기념해 '제주 사랑나눔푸드마켓'에 50만원 상당의 라면(29박스)을 기탁했다.

작은세상봉사단 김홍수 단장은 "세계식량의 날을 맞아, 주변의 이웃을 돕기 위해 회원들 모두가 마음을 모았다"며 "작은 기탁품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떡국용 가래떡 80kg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손뜻모아봉사회(회장 강행욱)는 지난달 9일 제주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80만원 상당의 가래떡 80kg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떡국용 가래떡은 봉사단원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참여



유진주간활동센터·단기거주시설(원장 최은미)은 지난달 10일 한라체육관 일대에서 선생님들과 이용인들 총 38명과 함께 '제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축제'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용인들은 안전모와 안전복 착용, 화재발생시 비상경사로 낙하체험, 건물내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배우며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전달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언)은 지난달 17일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사랑의 난방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현대오일뱅크 제주지사(지사장 양민웅)를 통해 난방유 주유권 300만원 전달받았다.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은 에너지소외계층 12가정에 전달 받은 주유권을 전달해, 이들 가정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유수암 노인당 찾아 봉사활동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2일 지역주민 친화프로그램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위치한 유수암 노인당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송죽원 이용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 한 주민으로써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지역어르신과 담소를 나누며 사회성을 기르는 기회도 가졌다.

시론

사회안전망 투자도 가치가 있을 겁니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제주의 땅값, 집값이 미쳤다. 노형동의 34평형 아파트 매도가가 1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평당 가격대가 서울 강남과 같다고 하니 속된말로 ‘헐’ 소리 절로 난다. 한 블록 건널라 치면 짓는 것이 공동주택이다. 절미하고 활발한 토지매매와 건설호황으로 취·등록세 추가세수가 3천억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2,3년 전에 비해서는 갑절 이상이고 그 추이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세수가 확충되었으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숨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제주개발공사가 시행해온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매입 후 임대사업은 예측했던 매입비용을 훨씬 뛰어 넘은

집값 때문에 곤혹이라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핵가족화 영향으로 삼화지구 임대아파트 건설이 마지막이라고 밝힌 상황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 같다. 그러기에 주택매매와 건설호황으로 확충된 취·등록세수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쓰여 진다면 의미가 클 것이다.

저소득층 주거 불안 더욱 심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취·등록세는 거기에 쓰라고 명목되어 있지 않다. 한 마디로 도지사 마음이다. 엇그제 도의회에서의 도정질문 한 대목을 보자.

원지사의 중요공약 중 하나가 ‘전기자동차구축사업’이다. 2016년 새해예산안에 관련하여 1천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아무개의원외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무상급식 등 복지재정으로 투자 전환 의견을 물었다. 덧붙인 질문은 확충된 취·등록세입 지방비를 왜 전기자동차에 집중배정 하였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지사는 전기자동차 조성사업은 친환경교통환

경 구축은 물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사회안전망보다는 산업투자가 선행해야 한다는 지사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2016년 새해 예산(안)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은 7천8백억원 규모로 전체예산의 19.6%이다. 올해 비중 대비로는 0.8% 증가한 정도이다. 제주도의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거안정기금 마련 등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의 개괄이 보이지 않는다.

사회복지예산 5년째 제자리

미친 땅값, 미친 집값으로 도민 간 빈부격차와 갈등요인을 미리 선방하는 투자비용과 도민 간 격차로 발생할 빈곤, 주거 격차 등을 해소하는 사후적 비용 중 투자의 가치 측면에서 양쪽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기대한다. 사회복지예산이 19%대에서 오락가락한 것이 몇 년째인가. 5여년 그리한 것 같다. 복지에도 투자하시길 지사님께 권유드린다.

기고

대한민국 청소년의 당연한 권리, 청소년증으로 누리자!



주규내
아이디동 주민센터

해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고 그 인원이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신분이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호연(훗날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청소년움브즈만으로 활동)의 진정을

인용하여, 당시 청소년 행정을 총괄하던,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우대정책과 비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 발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동시에 문화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인 느낌표에서 비학생청소년이 각종 할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방송한 것을 참조하여 청소년증 제도의 시행이 결정되었다.

청소년증은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며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하고 처리비용은 무료이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사진 1매(6개월 이내)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리인의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청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표로 사용 가능하다.

청소년증 발급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3번째로 선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학생, 비학생의 구분 없이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증의 발급이 널리 홍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칼럼

삼보일배



김길웅
시인·수필가

불교에서 탐진치(耽曠癡) 삼독(三毒)을 끊어 내고자 하는 수행법을 ‘삼보일배(三歩一拜)’라 한다. 단순히 걸음을 걷고 절하는 것만 가지고 삼보일배라 할 수 없다. 이 말에는 깊은 뜻

이 숨어 있다.

불교에서는 마음으로 일으키는 것이 곧바로 행동과 일치할 때 비로소 참된 수행이자 참된 깨달음으로 본다. 미망(迷妄)이라는 헛되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려 함이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일탈하면 모두가 헛된 깨달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수행법이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것은 2002년,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반대, 금정산·천정산 고속철도 터널굴착 반대시위에서 환경론자들이 처음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했다.

그 이듬해인 2003년 3월,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생명 파괴를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이 행진이 이뤄졌다. 불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가 합동으로 이 수행을 진행했다. 행진은 경건하고 엄숙했다. 전북 부안의 해창 갯벌을 출발해 서울까지 장장 65일 간의 대장정이었다. 땀이 흘러내리고 목이 타고 무릎이 닳아 해져 피를 흘리는 이 수행법은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종교를 초월한 비폭력 시위의 모델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한다. 1보에 이기심과 탐욕을 떨치고, 2보에 속세에 더럽혀진 진심(塵心)을 떨치고, 3보에 어리석은 치심(癡心)을 떨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걷고 절할 때마다 자신이 지은 온갖 나쁜 업(業)을 누우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서원(誓願)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종교를 초월해 평화적인 비폭력 시위의 모델이 되고 있다.

티베트 사람들이 혹독히 이 수행법을 행한다. 수행자들이 수백 킬로를 삼보일배 오체투지로 설산(雪山)을 오른다 한다. 앞을 가로막는 진창이나 물웅덩이, 돌부리 위에서도 자세를 흐뜨리지 않고 오로지 험산을 향해 오른다는 것이다.

수행자만이 아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살아서인지 언제나 여유롭다. 그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고 물으면, 미소 지으며 말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위해”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두 손의 끝이 자신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은, 기도는 여유가 있어 하는 게 아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외려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티베트는 자연환경이 척박해 삶이 고달프다. 그래서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더 불어 영혼의 우물도 깊어진다. 영혼의 우물이 깊어지면 삶도 그윽해지고 여유롭다.

시설탐방

(73)무지개지역아동센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 길러 줄 것”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해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건강, 창의, 자립심. 무지개 지역 아동센터(센터장 김선자)가 추구하는 가치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꼽으라면 손이 모자라겠지만, 이 만큼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게 있을까. 이런 운영목적 덕분인지, 아이들의 활동사진에는 연신 활발함이 넘쳐난다. 지난 달 17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무지개지역아동센터를 찾았다.

토평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무지개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영평동내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공부방으로 시작했다. 현재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조리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이며, 총 29명의 아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립 초, 무지개지역아동센터의 주변 지역에는 여러 면에서 돌봄

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한부모, 저소득 가정, 부모가 모두 일을 다니며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이 그 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의 관심이 부족할 경우, 학습 및 문화 활동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무지개 지역 아동센터는 기초학습 지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정서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해 왔다. 오카리나, 종이공예, 댄스교실, 체육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재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무지개지역아동센터는 오카리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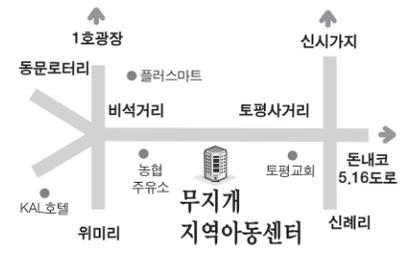
는 데 도움줄 대외활동도 계획 중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마준 교육도 눈에 띈다. 올해 초 한 아동은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상태로 센터에 들어왔다. 그렇지만 생활복지사, 학습도우미 등의 도움으로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또래와 같이 글도 쓰고 수업도 들을 수 있게 됐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지도가 성과를 낸 것이다.

센터에는 다양한 지역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역내의 16개 기관의 도움으로 상담, 학습 및 교육, 간식 등의 도움을 받는다. 특히 제주대학생들이 찾아와 진행되는 과학교실, 경제교실은 아이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또 주 2회씩 지역 내에 근무 중인 의경들이 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의 학습지도도 돕기도 한다.

김선자 센터장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자존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겉으로 보여지는 프로그램보다 아이들이 진정 원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적극 지지할 수 있는 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29)

새콤달콤 곶의 향연~ 제주국제감귤박람회

몽생이기자단 3기는 노란빛이 영그는 제주감귤축제가 있다고 하여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찾았다. 박람회장에는 감귤로 만든 커다란 돌하르방 모형이 보이고 향긋한 감귤냄새가 행사장을 뒤덮었다.

이번 제주국제감귤박람회는 ‘제주의 미래 세계속의 명품 감귤’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달 6일부터 15일까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감귤박물관에서 펼쳐졌다.

박람회에는 감귤기술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감귤기술전시관, 해외 감귤주산지 국가와 기업 그리고 단체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감귤산업전시관이 마련됐다. 그리고 감귤초콜릿 및 향장제품의 전시 및 판매, 감귤농자재전시관도 개장했다. 그 외 감귤무료시식, 감귤



탑 높기 쌓기 체험, 감귤요리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곳곳에서 열렸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제주국제감귤박람회장을 들어서자마자 감귤을 하나 까먹어보았다. 제주 감귤의 맛과 향은 어느나라의 과일과 경쟁해도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맛이다. 제주감귤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재배하는 감귤도 맛 볼수 있었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에서 제주 감귤은 여러 가지 식품, 재료 등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하루였다.

※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계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방문하시면, 기사의 따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㉗

개인정보보호 I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등록번호는 행정,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식별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다.

경우에 따라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한번 부여된 주민번호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모든 국민 개개인을 13자리 숫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큰 피해와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그 핵심이 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듯 하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한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허용했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



황인철 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법률홍닥터

하는 경우가 있다. 경품행사에 응모하거나 인터넷사이트의 회원가입 등 지금까지 특별한 생각 없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했던 경우들이 모두 위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주민번호 제공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또한 업무상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도 수집 업무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나 개인정보보호관련 정보는 국번없이 118번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로 문의하면 된다.

EVENT

고맙습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100호 발행기념 이벤트!!

(2016년 2월호)

2007년 2월 1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제주지역의 복지소식을 꾸준히 보도해 온 제주사회복지신문! 어느덧 창간 8년째에 접어들며, 오는 2016년 2월 1일자로 100호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제주도민과 사회복지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독자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100호 발행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하나

최고 애독자를 찾습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호(2007. 2. 1 발행)를 가지고 계신 애독자를 찾습니다. 창간호를 소장하시게 된 사연과 신문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중 가장 특별한 사연을 선정해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응 모 기 간 • 2015. 12. 1(화) ~ 2015. 12. 31(금)

- 참 여 방 법**
- 1. 소장하고 계신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호를 사진으로 찍는다
 - 2. 창간호를 소장하게 된 계기와 이유 등을 담은 사연을 적는다.
 - 3. 사진과 사연을 함께 동봉해 우편(제주시 청풍남8길 12-1) 또는 이메일(jejubokji@hanmail.net)으로 접수한다.
*이벤트 당첨자는 간단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 • 2016. 2. 1(월), 신문지면, 협의회 홈페이지 · 페이스북 발표

당첨자 경품 • 문화상품권 10만원권(3명)

이벤트 둘

축하 피켓을 들어주세요!

제주사회복지신문 100호 발간을 축하해 주세요. 100호 축하 메시지를 적거나 인쇄한 알림판과 함께 자신의 얼굴이 보이게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찍은 사진을 SNS를 통해 홍보하면 당신은 이미 이벤트당첨자!

응 모 기 간 • 2015. 12. 1(화) ~ 2015. 12. 31(금)

- 참 여 방 법**
- 1.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jejubokji)에 좋아요를 누른다.
 - 2. 직접 만들거나 인쇄한 100호 축하메시지를 들고 자신의 얼굴이 보이게 사진을 찍는다.
 - 3. 협의회 페이스북 페이지 이벤트 게시물에 촬영한 축하 인증샷을 댓글로 남기고 친구태그하거나 공유하기를 한다.

당첨자 발표 • 2016. 2. 1(월), 신문지면, 협의회 홈페이지 · 페이스북 발표

당첨자 경품 • 문화상품권 1만원권(35명, 선착순)